

## Verdict

시장은 기관 자금의 금 ETF→BTC ETF 구조적 재배분과 반감기 공급 축소가 72,489달러 지지선을 형성하며, 비트코인이 매크로 악재와 디커플링된 독자적 가치 저장 수단으로 진화 중이라고 보고 있음. 참여자들은 VIX 공포 구간(26.41)에서도 비트코인이 증시 약세를 무시하고 버티는 점을 근거로 하방 경직성에 베팅하고 있음. 이란 지정학 리스크와 규제 지연에도 불구하고 반감기 희소성 내러티브가 매수 심리를 지탱하고 있음.

하지만 직전 판정의 무효화 조건인 'BTC 1개월 수익률 +10% 이상 가속화'가 현재 +6.58%로 여전히 3.4%p 미달한 상태이며, 충족되지 않았음. 뷰 전환 마찰 규칙상 기존 약세 판정 유지가 정당함. 다만 주목할 점은 직전 판정 시 +3.54%였던 1개월 수익률이 +6.58%로 가속화된 것인데, 이는 모멘텀 회복 신호이나 무효화 기준(+10%)에는 여전히 미달함. 3개월 수익률도 -19.82%로 구조적 하락 추세(-22.21%에서 소폭 개선)가 지속 중이며, 고점 대비 낙폭 -25.23%는 깊은 조정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줌. RAG 검색 결과에서 확인된 '디지털자산 ETP 자금 유출과 선물시장 디레버리징 국면'은 기관 자금 유입 내러티브가 과장되었음을 시사하며, DAT 프리미엄 축소와 손익 모멘텀 둔화도 이를 뒷받침함. VIX 26.41의 공포 구간 지속과 SPX의 -3.94% 조정이 동시에 진행 중인 환경에서, BTC와 GOLD의 1개월 수익률이 각각 +6.58%와 +3.63%로 BTC가 소폭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연환산 변동성(BTC 48.22% vs GOLD 27.15%)을 감안하면 위험조정 기준으로는 금이 우세하여 '디지털 금' 디커플링 내러티브의 실증적 근거가 약함.

**Action:** BTC 숏 포지션 유지하되, 1개월 수익률이 +3.54%→+6.58%로 가속화된 점을 감안하여 모니터링 강화하며 무효화 조건 접근 여부를 점진적으로 추적할 것.

**Invalidation:** BTC 1개월 수익률이 향후 2주 내 +10% 이상으로 가속화될 경우(현재 +6.58%) 구조적 하락 추세 판정을 전면 재검토

**Risk Factors:** 매크로: DXY 100.1로 달러 강세 전환(1개월 +3.27%)이 진행 중이며, T10Y2Y 0.51의 수익률 곡선 정상화가 긴축 유지 신호로 작용하여 위험자산 전반에 디레버리징 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성, 기술적/포지셔닝: BTC 1개월 수익률이 +3.54%→+6.58%로 가속화되며 무효화 조건(+10%)에 접근 중이고, 3개월 수익률도 -22.21%→-19.82%로 개선되어 숏 포지션의 손익 모멘텀이 둔화될 위험, 이벤트: 이란 지정학 위기의 급격한 에스컬레이션 시 안전자산 수요 급증이 금과 함께 비트코인에도 일시적 매수세를 유발하여 숏 스퀴즈를 촉발할 가능성

## Macro Picture

**Regime:** transition

**Key Themes:** Institutional Capital Rotation (Gold to BTC ETF), Macro Uncertainty and High Volatility (VIX 26.35), Post-Halving Supply Scarcity vs. Regulatory Lag

**Dominant Narrative:** 기관 자금이 금 ETF에서 비트코인 ETF로 대거 이동하며 72,489.69달러 선을 지지하고 있으며, 반감기 이후의 공급 부족 현상이 가격 상승의 핵심 동력이라는 믿음이 강함. 이란 전쟁 우려와 규제 입법 지연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증시 약세를 무시하며 독자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진화 중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임.

**Reality:** T10Y2Y 스프레드가 0.51로 정상화되며 경기 침체 우려는 줄었으나, VIX가 26.35까지 급등하여 단기적인 유동성 발작 위험이 상존함. 327.46을 기록한 CPI 데이터와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둔 관망세 속에서, 실물 지표(INDPRO 102.34)의 정체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택적 집중을 강요하며 비트코인의 '디커플링' 시험대를 형성하고 있음.

## Hypotheses

## A (Market Right)

비트코인은 기관 자금의 구조적 재배분(금 ETF → BTC ETF)과 반감기 공급 축소가 맞물리며, VIX 26 수준의 변동성에도 72,489달러 지지선을 유지하는 독자적 가치 저장 수단으로의 레짐 전환이 진행 중임. 매크로 전환기(transition)에서 실물 지표 정체는 오히려 전통 자산 대비 비트코인의 상대적 매력을 강화하는 촉매로 작용하며, 1개월 수익률 둔화(+3.54%)는 일시적 조정이지 구조적 하락 재개가 아님.

기관 자금의 금→비트코인 재배분은 단기 변동성과 무관한 전략적 자산배분 결정이므로, VIX 급등에 따른 일시적 하락은 매수 기회로 흡수되며 72,489달러 하단이 유지됨. 반감기 이후 일일 신규 공급량 반감(~450 BTC/일)은 수요가 현 수준만 유지되어도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만들며, CPI 고착화로 인

한 실질금리 정체는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 헤지 내러티브를 오히려 강화함. 3개월 수익률 -22.21%의 구조적 하락은 바닥 확인 과정이며, 1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지 않는 한 반등 기조는 유효함.

## B (Market Wrong)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 내러티브는 VIX 26.35, CPI 327.46, INDPRO 102.34로 대표되는 긴축적 매크로 현실 앞에서 허구임이 드러나고 있으며, 1개월 수익률 +5.02%→+3.54% 감속은 구조적 하락 추세(-22.21% 3개월 수익률) 내의 데드캣 바운스에 불과함. 기관 자금 유입 내러티브는 실제 온체인 데이터와 ETF 순유입 둔화로 과장되었으며, 연준 관망세 장기화는 유동성 확장 지연을 의미하여 위험 자산 전반의 디레버리징 압력이 비트코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직전 판정의 무효화 조건인 'BTC 1개월 수익률 +10% 이상 가속화'가 +3.54%로 여전히 6.5%p 미달하며, 오히려 전 기간(+5.02%) 대비 감속 중이므로 뷰 전환 마찰 규칙상 기존 약세 판정 유지가 정당함. VIX 26.35 수준은 2022년 하반기 이래 위험 자산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0.6 이상으로 급등했던 구간과 일치하며, 이는 비트코인이 유동성 발작 시 안전자산이 아닌 청산 대상임을 반복 입증함. INDPRO 정체와 CPI 고착화의 조합은 스태그플레이션적 환경으로, 이 레짐에서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금 대비 심각한 언더퍼포먼스를 기록함.

**Key Question: VIX 25 이상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금(GOLD) 및 나스닥(NDX) 대비 실제로 디커플링(양의 초과수익률)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고베타 위험자산으로서 동반 하락하는 상관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가?**

## Tensions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독자적인 가치 저장 수단임을 주장하나, 실제로는 VIX 26.35 수준의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유동성 발작에 취약한 위험 자산의 속성을 보임.

0.70

Narrative: 이란 전쟁 우려와 매크로 불확실성 속에서도 증시와 디커플링되며 안전자산 역할을 수행함.

Reality: VIX 지수 급등(26.35) 시 일시적으로 6만 5천 달러 선을 돌파하며 무너진 방어선을 보여주는 등 전형적인 고위험 자산의 청산 흐름을 노출

BTC GOLD VIX NDX

기관의 금 ETF 자산 배분 전환이 가격 하단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낙관론이 우세하나, 실물 경제 지표의 정체와 규제 입법 지연이 신규 자본 유입의 한계를 형성함.

0.50

Narrative: 블랙록 등 기관 뭉치돈의 귀환과 금 ETF에서 비트코인 ETF로의 자금 이동이 하방 경직성을 확보함.

Reality: 미국 암호화폐 구조 법안 처리 지연과 INDPRO(102.34)의 정체 속에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세를 지속하며 추가 상승 동력에 대한 회의론이

BTC GOLD US10Y

반감기 이후의 공급 부족(Supply Scarcity) 내러티브가 가격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믿으나, 고물가 지속에 따른 긴축적 매크로 환경이 수요 측면의 제약으로 작용함.

0.60

Narrative: 공급 감소에 따른 희소성 가치가 매크로 악재를 무시하고 가격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함.

Reality: CPI 327.46 기록 등 인플레이션 고착화와 연준의 관망세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택적 집중을 강요하며 실질적인 유동성 확장 속도를 제한함.

BTC DXY SPX

## Eval Scores

PASS

Overall 5.0

Tension 5

Hypothesis 5

Evidence 5

Verdict Logic 5

**Feedback:** 전반적으로 매우 정교하고 수치 중심적인 분석입니다. VIX 26.35, CPI 327.46, INDPRO 102.34와 같은 구체적인 매크로 데이터와 BTC 1개월 수익률 가속도(+3.54% → +6.58%)를 연계하여 가설을 검증한 점이 탁월합니다. 특히 '뷰 전환 마찰 규칙(1개월 수익률 +10% 돌파 전까지 기존 뷰 유지)'을 명시하여 판정의 일관성을 확보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개선을 위해, 기관 유입 내러티브를 검증할 때 단순 RAG 검색 외에 온체인 데이터(MVRV, 실현 시가총액 등)를 쇼핑리스트에 추가하면 '디지털 금' 내러티브의 허구성을 더 입증력 있게 공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의 뷰: 시장은 기관 자금의 급 ETF→BTC ETF 구조적 재배분과 반감기 공급 촉소가 72,489달러 지지선을 형성하며, 비트코인이 매크로 약재와 디커플링된 독자적 가치 저장 수단으로 진화 중이라고 보고 있음. 참여자들은 VIX 공포 구간(26.41)에서도 비트코인이 증시 약세를 무시하고 버티는 점을 근거로 하방 경직성에 베팅하고 있음. 이란 지정학 리스크와 규제 지연에도 불구하고 반감기 희소성 내러티브가 매수 심리를 지탱하고 있음.

**결론: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 내러티브는 VIX 26.35, CPI 327.46, INDPRO 102.34로 대표되는 긴축적 매크로 현실 앞에서 허구임이 드러나고 있으며, 1개월 수익률 +5.02%→+3.54% 감소는 구조적 하락 추세(-22.21% 3개월 수익률) 내의 데드캣 바운스에 불과함. 기관 자금 유입 내러티브는 실제 온체인 데이터와 ETF 순유입 둔화로 과장되었으며, 연준 관망세 장기화는 유동성 확장 지연을 의미하여 위험 자산 전반의 디레버리징 압력이 비트코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MEDIUM]**

하지만 직전 판정의 무효화 조건인 'BTC 1개월 수익률 +10% 이상 가속화'가 현재 +6.58%로 여전히 3.4%p 미달한 상태이며, 충족되지 않았음. 뷰 전환 마찰 규칙상 기존 약세 판정 유지가 정당함. 다만 주목할 점은 직전 판정 시 +3.54%였던 1개월 수익률이 +6.58%로 가속화된 것인데, 이는 모멘텀 회복 신호이나 무효화 기준(+10%)에는 여전히 미달함. 3개월 수익률도 -19.82%로 구조적 하락 추세(-22.21%에서 소폭 개선)가 지속 중이며, 고점 대비 낙폭 -25.23%는 깊은 조정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을을 보여줌. RAG 검색 결과에서 확인된 '디지털자산 ETP 자금 유출과 선물시장 디레버리징 국면'은 기관 자금 유입 내러티브가 과장되었음을 시사하며, DAT 프리미엄 축소와 손익 모멘텀 둔화도 이를 뒷받침함. VIX 26.41의 공포 구간 지속과 SPX의 -3.94% 조정이 동시에 진행 중인 환경에서, BTC와 GOLD의 1개월 수익률이 각각 +6.58%와 +3.63%으로 BTC가 소폭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연환산 변동성(BTC 48.22% vs GOLD 27.15%)을 감안하면 위험조정 기준으로는 금이 우세하여 '디지털 금' 디커플링 내러티브의 실증적 근거가 약함.

→ BTC 숏 포지션 유지하되, 1개월 수익률이 +3.54%→+6.58%로 가속화된 점을 감안하여 모니터링 강화하며 무효화 조건 접근 여부를 점진적으로 추적할 것.

무효화: BTC 1개월 수익률이 향후 2주 내 +10% 이상으로 가속화된 경우(현재 +6.58%) 구조적 하락 추세 판정을 전면 재검토

